

2014. 5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2014년 5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문화방송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사	
2014.5.27.	대전MBC 대회의실	10/10	8	

- 시청자위원 불참자(명) 명단 : 없음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김창옥 사장, 김미리 경영기술국장, 김종찬 편성제작국장, 서주석 보도국장, 서영석 사업국장, 차태헌 방송기술센터장, 신원식 창사50주년 기획단장, 오승용 경영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6	8	-	1	15	-	15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8	7	-	15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6건	6건	4월
교양	공간 다큐멘터리 시청자들의 공감 이끌 수 있도록 제작	공간 다큐멘터리 시청자들 공감 이끌 수 있도록 영상, 내레이션 적절하게 조화	4월
교양	건강관련 교양 프로그램 시청자들에게 건강관련 유용한 정보 줄 수 있게 제작	건강플러스(교양 프로그램) 시청자 눈높이에 맞추어 건강정보 제공	4월
보도	도시철도 문제 지속적 취재 필요	도시철도 건설방식 등 도시철도 문제 지속적 취재 하고 있음	4월
보도	시사 토론프로그램의 주간단위 제목 선정시 내용과 걸맞게 할 필요 있음	시사 토론프로그램(시사광장)의 주간단위 제목 선정을 토론내용에 부합되게 선정하고 있음.	4월
교양	세월호 참사 이후 기본에 충실하자는 내용의 캠페인 전개 필요	기본에 충실하자는 내용 프로그램에서도 다루고 있고 캠페인 전개함	4월
보도	지방선거 보도시 후보자 공약 확인할 수 있는 취재 필요	후보자 공약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취재 보도함	4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해당사항 없음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임기 : '14. 5. 27.~ '16. 5. 26)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위원장	오덕성	충남대 부총장 세계과학도시연합사무총장	한국도시 행정학회	과학기술단체	기존위원 중 위촉
부위원장	김학선	전 대전MBC 편성국장	대전충남 아나운서협회	언론단체	위촉
위원	장백기	세종종합사회복지관장	한국청소년 진흥재단	청소년단체	위촉
위원	성정모	변호사	대전지방 변호사회	변호사단체	위촉
위원	박희원	대전충남 경영자총협회장 라이온 캠프 대표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위원장해촉 위원 유임
위원	한찬희	전 세계인삼엑스포 사무총장 현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감사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문화단체	위원 유임
위원	김명수	전 표준과학연구원장 현 표준과학연구원 연구위원	(사)대덕클럽	과학기술단체	위원 유임
위원	유덕순	전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현 대전YWCA 사무총장	대전YWCA	소비자보호 단체	위원 유임
위원	김형주	배재대 연극영화학과 교수	한국영화 교육학회	문화단체	위원 유임
위원	송인덕	전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관 현 중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사이버커뮤니케 이션 학회	언론단체	위원 유임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 (5월)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편성	<p>‘창사 50주년 100년 친구 대전 MBC’는 지난 50년 대전 MBC의 역사와 현재, 미래를 담은 최고의 슬로건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창사 로고의 시각적인 효과는 보는 이로 하여금 대전 MBC 이미지 제고에 큰 몫을 하고 있다. 대전 MBC에서도 창사 50주년에 걸 맞는 다양하고 크고 작은 행사들과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지역민들에게 다가 가리라 기대한다. 그런데, 아직까지 대전 MBC 창사 50주년 슬로건의 라디오 매체를 통한 대외 노출 빈도는 미약한 편이다. 청취자를 위한 라디오 매체의 홍보 전략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제는 안팎으로 창사 50주년 홍보 전략을 최종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한다. 그리고 세월호 사고로 연기 또는 취소된 창사 특집행사와 프로그램들이 향후 단기간에 집중될 경우 자칫 집중력 저하로 인한 부실화 우려도 있어 이 부분 또한 제대로 챙길 필요가 있겠다(김학선).</p>	<p>방송사로서 50년의 역사와 의미는 매우 중요하고 지역민에게도 뜻 깊은 일이다. 창사 50주년 슬로건 ‘100년 친구, 대전 MBC’는 사 이미지 제고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편성에서도 50주년을 맞아 특집 다큐, 대형 행사, 이미지 PR 등을 오랜 시간을 거쳐 준비하여 실행중에 있다. 라디오에서도 프로그램 내에서 50주년에 대한 청취자와 많은 소통을 하려고 노력중이다. 대형 생방송, 50주년 로고송 등을 준비 중이다.</p>	○		
보도	<p>지역 지상파 3사의 아침뉴스는 동일 시간대에 편성 돼있어서 평소 시청률 경쟁이 치열한 편이다. 대전MBC의 경우는 남녀 뉴스앵커의 기용으로 타사에 비해 뉴스 진행의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고 있다. 또 최근 여자 아나운서들의 이직으로 인한 공백을 무리 없이 채웠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번에 기용된 여자 아나운서는 뉴스리딩은 무리 없이 잘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남자 앵커에 비해 다소 무거운 톤과 슬로우 템포여서 일반적인 아침 뉴스 분위기에 아쉬움이 남는다. 그리고 가끔씩 나타나는 분장 사안으로, 남녀 뉴스앵커의 얼굴 톤이 전반적으로 밝은 편이다. 때로는 너무 하얗게 노출{번시시}되기도 해서 과한 분장의 표시가 난다. 얼굴에 나타나는 번질거림 현상 또한 가끔씩 볼 수 있다. 이른 아침이라는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보다 세심함이 뒤따랐으면 한다(김학선).</p>	<p>신임 여자 앵커의 뉴스적응력을 강화하겠다. 남자 앵커와의 조화를 이끌어 시청자들이 편안하게 뉴스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 분장에도 더욱 관심을 갖고 뉴스제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p>	○		
편성	<p>지난 50년 대전 MBC의 유구한 역사와</p>	<p>미래청사진을 미래비전의 이름으로 준</p>	○		

	<p>향후 50년 대전 MBC 미래의 청사진을 담은 메시지를 만들어 지역민들에게 TV와 Radio를 통해 공표할 계획은 있는지~~, 없다면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알고 싶다(김학선).</p>	<p>비하고 있다.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창사 50주년 기념일 이전에 완성된 미래비전을 공표할 예정이다.</p>			
<p>편성</p>	<p>허참의 토크&조이 「국내최대규모의 고운식물원! 이주호 원장」 편(5월 3일)이 방송되었다.이번 주 허참의 토크&조이에서는 조경 전문가 1세대인 고운식물원 이주호 원장과 대화를 통해 고운식물원 조성까지의 노력과 앞으로의 꿈을 들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특히 이번 주 방송은 실내 스튜디오에서 진행하지 않고 직접 고운식물원에 방문하여 식물원을 배경으로 야외 방송을 진행함으로써 시청자들도 함께 계절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었다. 또한 이주호 원장과 대화 사이에 식물원의 모습과 식물원에 방문한 시민들과의 인터뷰를 보여주는 참고 영상을 통해 식물원의 정보를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주호 원장의 정원사부터 시작하여 아파트 조경을 통해 어릴 적 꿈이었던 식물원 조성이라는 결실을 이루게 된 이야기는 체험에서 나온 이야기였기에 시청자들에게 더욱 깊은 감동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진행자들의 간결한 진행과 적절한 질문과 반응은 방송을 더욱 매끄럽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다(오덕성).</p>	<p>칭찬에 감사하다. ‘허참의 토크&조이’는 지역의 인물들을 초대하여 그들의 진실한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제작진의 노력과 시청자들의 좋은 호응으로 간판 프로그램으로 성장하고 있다. 되도록 현장 진행을 많이 하려고 노력중이며, 인물에 맞는 현장은 시청자들에게 보다 인물 이해에 더 많은 도움을 주리라 믿는다. 또한 허참 선생과 여자 아나운서의 호흡도 갈수록 빛을 발하고 있다. 더욱 정진하겠다.</p>	<p>○</p>		
<p>편성</p>	<p>시사플러스 「말뿐인 농어촌 개발, 영업중지를 앞둔 도비도 휴양단지」 편(5월 9일)을 보았다. 본 편은 한국농어촌 공사의 대호 간척지 휴양단지 사업이 중단위기를 맞은 이유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최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던 대호 간척지 휴양단지는 농어촌 공사와 당진시의 어정쩡한 관계 속에 주민들의 피해만 남긴 채 잠정 폐업했다. 이에 본 방송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각 단체들의 의견을 인터뷰를 통해 담아내었다. 농어촌공사대표, 자치단체, 시민연대, 지역상인대표와 농민단체의 의견대립을 다룸과 동시에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방안들을 제시하여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었다. 또한 공기업이 펼치는 무리한 사업과 부실경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균형적인 사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인터뷰와 연구위원의 의견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 시청자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도록</p>	<p>‘말뿐인 농어촌 개발, 영업중지를 앞둔 도비도 휴양단지’편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숙박동을 비롯해 암반해수탕의 시설이 적자난을 이유로 문을 닫는다는 것인데, 상인들은 휴양단지 내 중요한 시설이 문을 닫을 경우 사실상 휴양단지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지역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다. 이는 공기업의 미흡한 경영과 지자체의 소극적인 태도가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당진의 대표적인 휴양단지인 도비도의 회생방안은 없는 것인지 취재하였다. 그리고 지적하신 지루한 점을 극복하는 방안은 제작진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개선하도록 하겠다.</p>	<p>○</p>		

	<p>하였다. 다만 본 방송은 사회자의 진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인터뷰로만 진행되는 흐름으로 시청자들이 자칫 지루할 수 있어 아쉬움이 남았다(오덕성).</p>			
편성	<p>5월 17일 건강플러스에서 「우울증에 좋은 음식/ 여드름」편을 방송하였다.</p> <p>본 방송의 주요 주제가 나오는 TV주치의 프로그램에서는 피부과 전문의가 스튜디오에 나와 여드름에 관한 지식을 진행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여드름의 어원과 요인, 관련된 속설 등과 성인여드름의 특징과 양상을 그림 설명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주어 흥미롭게 시청할 수 있었다. 특히, 참고 영상으로 제공된 환자들의 인터뷰, 치료 장면과 전문의의 설명을 통해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문의와 진행자의 매끄러운 진행으로 시청자들의 충분한 이해를 이끌었으나, 프로그램의 마무리가 매끄럽지 못하고 급하게 정리된다는 느낌을 주어 아쉬움이 남았다(오덕성).</p>	<p>건강 프로그램은 전문의의 방송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전문적인 의학상식을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지루하지 않게 전달하는 것이 생명이다. 이를 위해선 쉬운 도입, 시청자 입장에서의 질문, 진행자의 능숙한 진행이 필요한데 다행히 이런 부분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보는 시간대라 주제도 어르신들이 도움이 되는 아이템이 방송되도록 항상 고민하고 있다.</p>		
편성	<p>생방송 아침이 좋다(5월 14일) 초대석 코너에 정신과 전문의를 초대해 정신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에게는 잘 도와주어 현실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를 치료해야 하는지 전문적 의견이 미약했다(한찬희).</p>	<p>출연자와 제작진의 사전 취재부분이 부족해서 일어난 것이다. 주의하도록 하겠다.</p>		
보도	<p>시사광장(5월4일)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사회의 부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회에 안전은 없다」를 방송하였다. 많은 채널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이라 참신한 내용들이라기보다 중언부언 같은 말의 반복일 따름이었다.</p> <p>다른 채널에서 많이 다루지 않은 세월호 희생자뿐만 아니라 유가족과 현장에서 구조된 사람들의 후일담을 다루면서 토론을 가졌다면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또한 대전 충남 우리 지역에 문제가 있을만한 유사 사례지역을 놓고 심도 있는 토론을 가졌다면 더욱 좋았겠다(한찬희).</p>	<p>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지역의 안전을 화두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준비 하겠다.</p>		
보도	<p>세월호 참사 관련 뉴스를 지역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세월호 참사 날짜인 4월 16일에서 현재까지 대전MBC 뉴스에서는 17건을 다루었다. 희생가족 바자회, 합동분향소 애도 분위기 등의 내용</p>	<p>우리 지역의 다중시설 안전문제에 대해 취재를 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성이나 환경오염물질 방재 등 다각적인 뉴스를 제작해왔고 또 계속할 생각이다.</p>		

	이 주를 이루었다. 소극적 자세의 보도를 탈피해 늘 했던 방식의 관례적인 정부의 대처방안에는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등 적극적인 자세의 보도는 없었다. 대전에서도 시민추모제나 촛불문화제가 주말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도도 소극적이다. 세월호 관련 시민들의 정서나 분위기를 지역이라고 해서 무관심하게 처리하면 안된다. 이런 참사는 어느 지역에서 또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언론에서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취재가 요구된다(송인덕).			
보도	지방선거철이다. 후보자 공약을 점검하는 뉴스를 접한다. 최근 대전시장 출마한 모 후보가 학위논문을 표절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학위논문 표절을 단순히 네거티브 공방으로 보아 간단하게 처리할 성격은 아니라고 본다. 논문표절이 팩트라면 유권자인 시민들이 올바르게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심층적인 취재가 필요하다고 본다(송인덕).	정치적 공방이 아닌 정책, 공약위주의 분석으로 지방 선거 뉴스 프레임을 짜고 있다.		○
보도	홈페이지에 선거방송을 별도 항목으로 만들어 다시보기로 올려놓은 것은 잘한 일이라고 본다. 관심 있는 유권자들이 선거방송 다시보기를 통해 후보자들의 정강과 정책들을 비교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유덕순).	다시보기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한 표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후보자토론회, 선거방송 등은 바로바로 다시보기를 올려놓고 있다.		○
기타	홈페이지 다시보기 기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대전KBS의 경우 화면 클릭을 하면 200% 기능이 있어 전체 모니터 화면의 1/4 크기 사이즈로 볼 수 있다. 전체 모니터 화면으로 보지 않아 좋고 화질도 좋다. 대전MBC 화면은 아주 작은 화면으로 보거나 모니터 전체 화면으로만 볼 수 있다. 화면 사이즈를 200% 기능을 첨가시킬 수 없는지 기술적 검토를 해주길 바란다(김명수).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재작업 하고 있는 중이다. 조만간 새롭게 단장하여 시청취자들에게 선보일 것이다. 홈페이지 개편 이후에 다시보기 화면도 지적해준 것과 같이 화면 사이즈를 200% 기능을 첨가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보도	뉴스 제작시스템을 보면 지역방송의 뉴스 포맷은 방송사마다 차별화 되어 있지 않고 거의 동일하다. 오프닝, 본 내용, 클로징 순으로 이어지는데 오프닝과 클로징 멘트는 방송사가 타 방송사와 성격을 다르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신임 아나운서와 함께 진행하는 뉴스 프로그램에서 클로징 멘트는 획일적이지 않아 좋았다. 계속 클로징 멘트의 신선한 변화를 기대해 본다(김형주).	타 방송사와의 보도 프로그램에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기획 코너뿐만 아니라 앵커의 오프닝, 클로징 멘트에도 대전MBC 색깔이 묻어나도록 노력하겠다.		○

<p>편성</p>	<p>5월 21일 MBC라디오 특급작전을 청취하였다. 이 날 방송은 부부의 날을 맞아 총남 서천 한산의 청취자와 전화연결을 하였다. 한산의 소곡주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무심한 남편에 대해 남자진행자가 소곡주를 마시고 깡판을 부리라는 멘트를 하였다. 재미를 주자고 한 말이라고 하여도 품위를 떨어뜨리는 어휘 구사라고 본다. 진행자에게 주의조치를 주고 금도를 넘지 않는 단어구사를 하길 바란다(박희원).</p>	<p>진행자의 어휘구사는 중요한 문제다. 청취자에 대한 호응을 하는 부분에서 재미를 더하고자 품위를 떨어뜨리는 언어구사가 우발적으로 표출된 것이다. 주의조치를 하였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p>	<p>○</p>		
<p>편성</p>	<p>5월 14일 테마기행 길을 보았다. 전남 화순 편이 방영되었다. 화순의 재래시장을 시작으로 마지막 여행지인 백야산까지 시골마을을 탐방하여 잔잔하고 정감있게 영상을 담았다. 아쉬운 점은 유명 관광지 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여행지의 교통편 이용을 CG나 자막으로 이용방법을 상세하게 전달해 주었다면 좋았겠다. 시청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길 바란다(박희원).</p>	<p>테마기행 길은 지역MBC 공동제작 프로그램이다. 공동기획회의 시 프로그램 제작에 관해 전반적인 토론을 갖는다. 이러한 내용은 정보를 공유하여 제작시 참고하도록 하겠다. 기본적으로 정보 관련 사항은 시청자들에게 시청각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교통정보는 더욱 그러하다. 제작 시 유념하겠다.</p>	<p>○</p>		

대전 MBC

www.tjmbc.co.kr

대전문화방송(주)
305-740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61(도룡동) 대표전화 : (042)330-3114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
161 Expo-ro, Yuseong-gu, Daejeon, 305-740 Korea

담당: 정종건 전화: 330-3600 FAX: 330-3700

문서번호 : 대문방 경영심의 제 311 호 2014. 6. 9.
수 신 : 방송통신위원장
참 조 : 방송기반총괄과장
제 목 : 2014년 5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보고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4년 5월 대전MBC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을 첨부와 같이 보고합니다.

첨 부 : 2014년 5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1부. 끝.



대전문화방송(주) 대표이사 사장 김 창

